

바라밀현장

봉은사 선재마을의료회 작은병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그냥 남에게 주고싶을뿐

선재마을 의료회 여호숙 간호사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돕는 거죠. 세상에 내 물건 남의 물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고 싶을 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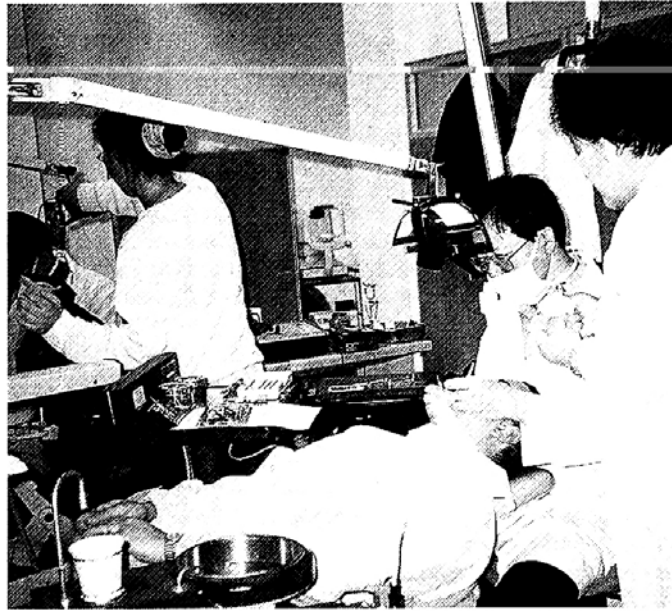
선재마을의료회 회원인 여호숙 간호사(38·감남 차병원, 여 씨는 선재마을의료회 봉사활동의 전방위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자다. 간호사의 본업인 아픈 사람 돌보는 봉사부터 선재마을의료회 소식지 발간, 회원들간의 연락 및 친목 도모, 시청이나 봉은사를 상대로 한 업무 등, 선재마을의료회 일이라면 여김없이 여 간호사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회원들이 여 간호사에게 지어준 이름도 '선재마을 감초'다.

봉사활동을 찾아다닐 정도로 타고난 봉사활동가 이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여 간호사. 그녀는 늘 불교계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지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할 때었는데 평생 짝에 다니던 독실한 불자도 70~80%가 넘게 죽는 순간 개종을 한다고 하더군요. 불교계가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 간호사는 어서 빨리 불교계가 봉사활동에 대해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할머니, 여기가 아프세요?" "응, 어깻밥과 속이 뻐스꺼워 하나도 먹지 못했어. 나이가 드니까 죽으려는지 말야." 가만히 청진기를 할머니의 배에 대고 상태를 살펴본다. 여기 저기 차가운 청진기가 닿자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몸을 뒤흔든다. "할머니, 위에 염증이 생긴 모양이에요. 약 드시고 맛 좋은 음식 드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서울 봉은사, 지하식당 옆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보통 사람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열 평도 안 되는 곳에 십여 명의 의사, 약사, 간호사들이 복잡거리면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있다.

99년부터 서울역과 봉은사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해온 선재마을의료회가 올해부터는 봉은사 내에 '작은병원'을 차린 것이다. 내과, 치과, 안과, 소아과는 물론 한의과까지 갖추고 있어 일반



선재마을의료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유명하다. 총치를 잃어온 네팔인 불자가 치과 의사 김유진씨의 치료를 받고있다.

세상을 진료실로 삼는 자비인술

진료비 무료...외국인 노동자에 인기

"내년엔 인도 다람살라에서 인술"봉사

병원에 뒤질 게 없다. 특히 진찰하고 약까지 받아가지면 진료비가 없다. 능력대로 부처님께 보시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독거노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3일 오후, 11월 첫 번째 주 근무를 자청한 이정근(53), 치과의 김유진(47), 안과의 손경숙(48), 약사 이현숙(32) 씨 등 10여 회원들이 작은병원을 지키고 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한 둘 아니죠. 돈이 있으면서 일부러 찾아오

는 환자를 보면 알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 아닐까요?" 안과 환자를 진료하면 손경숙 씨가 하는 말이다.

손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재마을 의료회의 진료가 단순한 진료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무명과 업을 청정케 해 줄 수 있다.

내년에 강제추방을 당한다는 소식 때문에 요새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서툰 한국 말이지만 그들은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자리를 뜬다.

대기 순서를 기다리던 환자를 부르러 밖으로 나갔던 여호숙(38) 간호사가 말한다. "여기가 좋은 물건 중 새 것이라고는 하나 없어요. 냉장고며, 난방기구를, 심지어 치과 진료기계, 안과 장비 등 하나 하나 여러 사람들이 내 놓은 것들이에요."

선재마을의료회원들은 내년에는 꼭 인도 다람살라에서 의료봉사를 해보자는 서원을 세웠다. 부처님이 나신 땅을 찾아가 참배하고 달라이라마 스님을 뵈고 고향 잃은 티베트인을 돕기 위해서다. 모두들 너무 바빠서 몇 년이 지나도 서로 얼굴을 제대로 모르고 지내다가 일주라는 회원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다.

강유진 기자 shanmok@buddhapia.com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더불어 사는 삶

11월-보시의 달

- 깨달음의 첫 번째 길
- 더불어 사는 삶
- 누구라도 보시할 것은 있다
- 일상의 보시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은 '우리는 선우'는 지난 해부터 '3% 결사 운동'을 벌여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 결사 운동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물, 유산의 3%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자는 운동. 이미 대부분의 회원들이 3%를 넘어 매일 5%이상의 보시를 생활화하고 있고, 회원의 5분의 1 정도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유동호 기획과장은 "신행에서 보시나 봉사를 강조하지만 막상 참여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불자들이

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천원으로 자비를 실천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99년 출범한 전주 천원클럽은 매달 1천 명이 1천 원씩 보시하는 운동을 3년째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준다. '1천 원'이라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낸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부처님오신날 밝히는 연등도 그 의미가 바뀌고 있다. 개인적 소망이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것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



자신이 가진 시간과 능력을 나누는 것도 적극적인 보시행이다. 성불원 바라밀회 유영서 회장은 매주 수요일 소책자마을을 원생들에게 찬불가를 지도한다.

이웃·사회로 회향하는 보시행 확산

올바른 신행 나눔의 실천에서 시작

이 많아 시작하게 됐다"며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깨어있는 시간의 일부를 남을 위해 쏟으려 하는 것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간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보시행임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과 사회로 회향하는 이러한 보시행은 불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불교바보세우기 재가연대 역시 따로 행사를 펼치지는 않지만 1% 회향 운동을 출범 초기부터 펼쳐오고 있다. 재가연대는 정기 소독과 유산의 1% 보시, 주간·월간 단위로 시간의 1% 봉사 활동 참여, 1% 나눔을 위해 기도하기 등 나누는 삶을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하고 불

해 연등을 밝히는 예가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우는 10년 전부터 장흥공원에 '자비의 등'을 달아 보시금을 불우 이웃에게 회향해 오고 있으며, 조계사 역시 지난 해부터 '이웃을 위한 등'을 달고 있다. 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은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불공은 많이 해도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올바른 신행은 나눔의 실천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도 늘어날 시기이다. "온갖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은 부처님의 무상의 큰 묘법(妙法)을 구하는 까닭이다"(십심론)는 경전의 한 구절을 되새겨 볼 때다. 권형진 기자

방하착(放下)은 불교 수행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같은 뜻을 가진 '놓아라'라는 우리 말도 방하착이라는 말과 함께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말의 출전은 조사어록의 하나인 <선련염송(禪鍊頌頭)>에서 찾아

치어, 놓아라"라고 다시 말씀하셨고, 혹자는 오른손의 꽃을 놓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놓으라는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부처님은 양손의 꽃을 다 놓은 그 수행자를 향해 다시 한 번 "혹치어, 놓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에게는 놓을

니, 처음에는 육근을 놓고, 다음에는 육경을 놓으며, 마지막에는 육식을 놓아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혹자는 곧 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집착, 또는 탐진치를 놓는다는 것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 분명하

으로 닦쳐오게 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다. 놓아야 하는 경계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는 범부도 쉽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도 쉽게 놓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 둘을 구별하게 되면 우리는

면 "놓아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굳이 "놓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경계가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선정 수행만이 생각으로만 하는 수행을 넘어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무명과 업을 청정케 해 줄 수 있다.

내가 오래전에 벽에 못을 박다가 실수로 영치뿔을 다쳤을 때, 나는 수행이고 관찰이고 도무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깊은 선정은 이런 수행자만이 그런 경계에서도 여여한 마음, 즉 놓은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려한 마음으로 선정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수행자의 자세이다. 寂然

마음비추기

선정만이 참으로 놓는 길이다

볼 수 있다. 어느 날 혹치라는 수행자가 양손에 오동나무꽃을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 하였다. 이 때 부처님께서 그를 향해 "혹치어, 놓아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혹치는 왼손의 꽃을 놓았지만 부처님께서 다시 "혹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여쭙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양손의 꽃을 모두 다 놓았는데 다시 더 무엇을 놓으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치어, 네가 놓을 것은 꽃이 아니라 집착이 나. 너는 세 가지를 놓아야 하나

다. 바꿔 말해서 이것을 다 행할 수 있으면 수행이 완전히 익었다고 할 수 있다. 것처럼 중요하고도 깊은 수행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놓는다는 이 수행을 완성하기는 극히 어렵다. 경계를 당하기 전에는 쉬울 것 같은 이 놓는 수행이 실제상황

함부로 "나는 놓고 산다"느니, "그런 걸 왜 놓지 못하느냐"느니 하는 말을 하기 어렵게 된다. 혹치와 같은 높은 근기를 갖지 못한 우리들의 경우 놓으려면 놓기 위한 수행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정수행이다. 선정이 깊어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삼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 많은 불자들의 방곡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께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해 해수들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행동,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예병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려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신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어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식용유에 아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걸러가 된다. 즉, 인체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원의 원종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계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 불교 사관학교 (제1기 모집, 6개월 단기 출가)

-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수행.
 - 매월 1회 외박 가능, 일요일 자유정진
- 고졸 이상
- 나이 30세 미만 - 남자
- 숙식 무료 제공
 - 직원 채용시 우선 채용. 분원에서 생활 가능
- 참선 및 불교수행, 경전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 외국인 불교대학 (제1기 모집)

- 11월 23일(토). 첫 강의, 모든 외국인 영어 강좌

▶ 출가자 모집 (남행자)

-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 40세 미만, 고졸 이상
-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 목표 - 현재 20명 배출, 수행 중.
- 수계 후, 공부·수행 모든 뒷바라지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길손여행」의 저자 '우학스님(본사찰의 회주) 직접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마지막까지 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후 몸에서 남은 사리가 봉안된 순금 사리백자이며 순금으로 새겨진 천수경과 함께 모셔두면 불자들의 모든 업장소멸과 함께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과 자비로서 가정의 편안함과 온갖 재앙과 악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도자기 안쪽에 새겨진 5개(재수부, 건강부, 소원성취부, 금전운부, 사업번영부)의 부적으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며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는 영험한 천수경 도자기다

재수부, 소원성취부, 건강부, 사업번영부, 금전운부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안쪽 밑면에 봉안된 부처님의 사리를 불자들이 직접 친견함으로써 몇몇의 무명 속에서 헤매이던 두터운 업장을 소멸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면 소원성취와 부처님의 한량없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안쪽에 봉안된 부처님의 사리상(舍利像)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
작품 보급가 ▶ W328,000 ~ 230,000원

※ 은영신용카드 사용시 6~12개월 분할

반야사/불교문화연구원
TEL 051)583-7774(대)

▲ 24K 순금 · 규격 / 높이 45cm 폭 95cm

※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심을 기원드리기위해 천수경 순금 사리백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작품을 충분히 확인, 검토후 한달(30일)이내 대금 지불이 가능합니다.